



OPmobility, 아시아 리더십 강화를 위해 성민석 (Min Sung)을 한국 회장으로 임명

OPmobility는 성민석 을 한국 회장(Chairperson Korea)으로 임명하여 국내 사업을 이끌고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직책은 OPmobility의 혁신 로드맵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리적·기술적·고객 다각화 전략의 일환이다.

성민석 은 약 30년에 걸친 글로벌 자동차 산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미국 포드(Ford Motor Company)에서 제품 개발 엔지니어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이후 한온시스템(Hanon Systems)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거쳐 최고경영자(CEO)를 2023년까지 역임하며 리더십을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SK온(SK On)에서 최고사업책임자 (CCO)로서 사업 개발, 글로벌 합작투자 및 파트너십, 운영 성과를 총괄했다.

한국 회장으로서 성민석 은 OPmobility의 한국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현지 완성차 제조업체(OEM)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현대모비스 램프 사업 지분 인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대모비스와의 협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OPmobility는 1992년부터 한국에서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현재 6개의 생산 공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회사는 한국 및 글로벌 OEM을 대상으로 외장 시스템, 복합 모듈,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및 수소 전동화 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오랜 사업 기반은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첨단 솔루션을 통해 한국 고객을 지원하겠다는 OPmobility의 의지를 보여준다.

OPmobility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세계적 선도 기업이자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의 기술 파트너이다. 1946년 설립 이후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OPmobility는 4개의 상호 보완적인 비즈니스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장 및 조명 시스템, 복합 모듈,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및 수소 전동화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또한 전용 조직인 OPnSoft를 통해 소프트웨어 역량도 개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매출 115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152개의 공장과 40개의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약 38,000명의 직원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

성민석 한국 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에서 OPmobility의 중요한 성장 시점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고객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지 팀을 지원하며, 지역 내 OPmobility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Pmobility 최고경영자 펠리시 뷔렐 (Félicie Burelle) 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민석 은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술 및 사업적 발전을 이끈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우리의 기술적·지리적·고객 다각화 전략에 부합하며 아시아에서 OPmobility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모비스와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도 지원할 것입니다. 그의 합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